‘장수쿨밸리페스티벌’ 7월 17일 개막

추진위원회, 정기총회서 축제 일정 등 확정

장수군의 여름 축제 ‘장수쿨밸리페스티벌’이 오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휴양지인 장수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장수쿨밸리페스티벌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정택)는 군 소통행정복합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축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임정택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축제 운영 결과를 보고했으며 올해 축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예산 운영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더위를 식혀줄 장수만의 청정 자연과 계곡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축제가 제헌절 연휴와 맞물려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사람이 모이고 꿈이 샘솟는 ‘돌아오는 진안’ 만들겠다”

전용태 전북자치도의원, 도의회 진안군선거구 출마 선언

전용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57)이 18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전북자치도의회의원선거 진안군선거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전용태 예비후보는 “진안군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고 더 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도의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저의 교실은 진안군에 거리였고, 저의 스승은 군민 여러분이었다”며 “현장의 불편을 정책으로 바꾸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 했다.

전 예비후보자는 진안군의 열악한 환경과 산적한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정책 전환을 강조 했다.

특히, “떠나는 진안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꿈이 샘솟는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평가받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진안군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투자하는 도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중앙과 도정, 그리고 지역을 잇는 실력 있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금 진안군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인구 감소, 산업 정체, 새로운 성장 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히 투자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 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되겠다”며 “군민과 함께 더 큰 진안군의 희망을 짓고, 미래를 잇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 유럽 30만 달러 수출 계약

Ciao Asia와 매년 10만불씩 3년간 계약 성사

사)진안군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한국체육대학교 산학기업 ㈜케이샵의 유럽 해외법인 Ciao Asia(대표 강광배)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총 30만 달러(약 4억 5,000만원) 규모의 진안홍삼 브렌드 제품의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은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비즈니스대회에서 전춘성 진안군수와 사업단 관계자들이 ㈜케이샵(대표 강광배)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한 진안홍삼 수출 방안 업무 추진 이후, 이탈리아 파도바 K-Shop 매장 내 진안홍삼 홍보관 입점(2025년 12월), 진안군과 오스트리아 수입업체와 수출방안 논의(2026년 2월)를 거쳐 본격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진안군과 사업단이 노력한 결과이다.

18일 진안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강광배 ㈜케이샵/Ciao Asia 대표와 김정배 사업단장, 전춘성 군수, 한소영 과장이 함께했다.

강광배 대표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한국체육대학교 산학기업 ㈜케이샵과 유럽 법인 Ciao Asia 대표를 맡고 있고 이탈리아 K-Shop 매장과 최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K-Shop 2호점 등 오프라인 유통 관련하여 유럽시장 전반에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진안관내 군수품질인증제품 및 진안홍삼 연구소 기술이전 제품, 홍삼 명인 제품을 향후 3년간 매년 10만 달러(약 1억 5,000원)씩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첫 수출은 2026년 2분기 선적을 목표로 세부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이번 수출 계약은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진안홍삼 홍보관을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판로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순수 군비를 투입한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개시

군, 주민 1인당 연간 총 8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무주군이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순수 군비를 투입한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 시작했다.

무주군은 18일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은 20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이뤄지며, 카드형 상품권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지급 대상자의 95%에 해당하는 2만 172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상반기에만 총 86억9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관내 6개 읍·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유도했다.

주민들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5년 공모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 원을 재원으로 추진되며, 무주군은 관련 지침을 준용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개장… 코스 완성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대표 성장현)가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18일 개장했다. 무주덕유산CC는 휴장 기간 동안 대대적인 벙커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여 코스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전년 대비 그린피를 인하해 골퍼들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특히 기습적인 우천 후에도 즉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배수공사를 진행했다. 벙커 내 모래는 최고급 화이트 샌드로 전면 교체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벙커 샷 시 부드러운 타구감과 일관된 반발력을 제공해 호쾌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해발 950m 고지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는 세계적인 골프 거장 아놀드 파머의 설계 철학이 담긴 곳으로,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 / 아웃코스 파36, 야드 3,472)로 구성되어 있다. 청정고원 골프장의 지형의 굴곡을 그대로 살린 역동적인 코스 레이아웃이 특징이며, 이번 벙커 리노베이션을 통해 골퍼들은 초록빛 페어웨이와 하얀 벙커가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코스에서 고품격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가족호텔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골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침실, 화장실, 주방용품, 객실비품, 설비 등 내부를 전면 새단장한 것은 물론, 건물 외부도 기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기존의 알프스 풍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재들로 교체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우렁이 농법 지원에 나섰다.

무주군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5월까지 지역 내 벼 재배 농가 407곳에 총 7096kg의 우렁이 종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 농지 1ha당 55kg 상당의 우렁이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우선 구입한 뒤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벼 재배 농가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 필리핀 계절 근로자 83명 단체 입국

진안군은 18일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83명이 단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36명의 농가주와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입국한 83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1월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과 농촌일손지원센터가 필리핀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최종면접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우수한 근로자들로써 성실근로자 재입국 근로자들이다.

본격적 영농기에 접어든 농가주들은 한달음에 달려와 반가운 마음을 전하며 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등 유의사항 안내를 듣고 근로자들과 함께 귀가했다.

2026년 진안군은 농가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5농가 98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아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746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241명을 도입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실시한 최종 면접을 합격한 우수한 계절근로자들이 무사히 입국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일해서 진안군 농가 소득도 올리고 월급도 많이 받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